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아시아문화연구소

『개벽』 창간 백주년 기념 공동기획 학술대회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개벽』으로 다시 여는 매체인문학 연구의 새 지평

일시

발표문 공개 2020년 10월 5일 · 발표영상 공개 10월 8일

온라인 종합토론 10월 10일 오후 2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s://ddmh.skku.edu>

진행사회 · 이경돈(성균관대)
종합토론사회 · 박헌호(고려대)

인사말 안대회 대동문화연구원장

『개벽』의 표지 이미지 연구 발표 : 서유리(서울대) · 토론 : 조현신(국민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벽』의 논조(論調) 분석 발표 : 허수(서울대) · 토론 : 천정환(성균관대)

1920년대 '도덕'의 의미망과 개념의 재구축 발표 : 이행훈(한림대) · 토론 : 조성환(원광대)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 발표 : 최수일(성균관대) · 토론 : 김영진(성균관대)

혁명 이후의 말, 삼일운동과 『개벽』 발표 : 박숙지(서강대) · 토론 : 권두연(연세대)

동인지와 프로'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발표 : 박헌수(성균관대) · 토론 : 권보드래(고려대)

1920년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문학시장의 구조적 변동 발표 : 유석환(성균관대) · 토론 : 정용서(연세대)

개벽사와 차상찬 발표 : 정현숙(한림대) · 토론 : 오현숙(서울대)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개벽》으로 다시 여는 매체인문학 연구의 새 지평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부 근대 잡지 개벽	개회사 안대회 대동문화연구원장	진행 사회자: 이경돈(성균관대)
	발표주제1 : 잡지 『개벽』의 표지 이미지 연구 발표자 : 서유리(서울대) 토론자 : 조현신(국민대)	
	발표주제2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벽』의 논조 분석: 거시적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 허수(서울대) 토론자 : 천정환(성균관대)	
2부 사상과 운동의 개벽	발표주제1 : 1920년대 '도덕'의 의미망과 개념의 재구축 :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행훈(한림대) 토론자: 조성환(원광대)	
	발표주제2 :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 발표자 : 최수일(성균관대) 토론자 : 김영진(성균관대)	
	발표주제3 : 혁명 이후의 말, 삼일운동과 『개벽』: 독자투고, 현상문, 강연문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박숙자(서강대) 토론자 : 권두연(연세대)	
3부 개벽과 식민지 문화	발표주제1 : 동인지와 프로 '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발표자 : 박현수(성균관대) 토론자 : 권보드래(고려대)	
	발표주제2 : 1920년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문학시장의 구조적 변동 발표자 : 유석환(성균관대) 토론자 : 정용서(연세대)	
	발표주제3 : 개벽사와 차상찬: 『개벽』 『별건곤』 『혜성』 『개벽』 (신간호)의 기획 특집을 중심으로 발표자: 정현숙(한림대) 토론자: 오현숙(서울대)	
종합토론	조현신, 천정환, 조성환, 김영진, 권두연, 권보드래, 정용서, 오현숙	종합토론 사회자: 박헌호(고려대)

여는 인사

한국 근대의 가장 빛나는 잡지 『개벽』. 창간 백년을 맞아 『개벽』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새로 발굴하고 매체인문학의 재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920년 6월 창간된 『개벽』은 백년 전 형성된 한국인의 정신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의 역사와 한 궤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폐간과 정간, 재창간을 거듭하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져 스스로 근대적 정신의 형성과 전개에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개벽』 이후 백년의 시간이, 백년 전 『개벽』 속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역사적 재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지금에, 3.1운동이 낳은 최고의 산물 중 하나인 『개벽』은 3.1운동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전환이 회자되는 21세기, 백년 전의 기억과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맞닥뜨린 역사의 추향과 문화의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한편, 『개벽』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근대를 대표하는 매체로 창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체인문학 연구의 시작을 알렸던 대표적 근대 잡지이기도 합니다. 『개벽』 연구를 발판삼아 『신여성』, 『별건곤』, 『어린이』 등 개벽사가 발행했던 잡지들과, 『소년』, 『청춘』, 『신청년』 등 근대계몽기의 잡지들, 『신동아』, 『조광』, 『중앙』 등 신문사 발행 잡지들이 인문학적 시야에서 조명되었고, 나아가 『사상계』와 『여월』, 『선데이서울』 등 해방 후 매체로 확산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매체인문학 연구의 기폭제이자 발원지가 『개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벽』으로부터 매체인문학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은 근대성의 발본적 질문들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질 것입니다.

2020년 『개벽』 창간 백년의 오늘에,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공동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백년의 『개벽』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매체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도약의 뇌관을 찾아내어 매체인문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개벽』이 그러했듯이, 『개벽』으로부터 3.1운동 이후 한국의 백년을 되돌아보고 다시 향후 백년의 시간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안대회

목 차

(발표문)

<1부 근대 잡지 개벽>

『개벽』의 표지 이미지 연구 토론 의제

/ 조현신 5

허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벽』의 논조 분석: 거시적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천정환 9

<2부 사상과 운동의 개벽>

『개벽』의 도덕, 도덕의 개벽: 이행훈 교수의 논문에 대한 세 가지 코멘트

/ 조성환 11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에 대한 토론문

/ 김영진 14

박숙자 선생님의 「혁명 이후의 말, 삼일운동과 『개벽』-독자투고, 현상문, 강연문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 권두연 17

<3부 개벽과 식민지 문화>

박현수 선생님의 「동인지와 프로 ‘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토론문

/ 권보드래 19

유석환, 「1920년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문학시장의 구조적 변동」 토론문

/ 정용서 22

정현숙 선생님의 「개벽사와 차상찬」에 대한 토론문

/ 이해정 25

『개벽』의 표지 이미지 연구 토론 의제

조현신(국민대)

발표내용 핵심

서유리 선생님의 『개벽』 표지에 대한 연구.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개벽의 표지를 확장하여 본문의 일러스트레이션, 기사 내용과의 연관성까지 관계지어 촘촘한 부연과 예시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서두에서 창간 1주년 기념호 구회의 인물을 발간 주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설정 후 표지를 상징적 동물, 인물상, 지도와 지구, 한글제호의 4가지 군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호랑이와 독수리는 그 도상적 해석으로 보아서라도 강함, 힘과 초월적 경지를 지향하는 근대 주체로, 독서하는 남성은 근대계몽 주체로서 서구화된 인물, 지구와 지도는 세계화에 대한 강박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한 후 지도 표상의 하부 카테고리로서 조선문화기본조사는 조선의 지적자원과 인적자원의 시각적 분포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없는 한글 제호 표지를 들어서 한자를 읽지 못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설명을 본문의 사진과 기사의 변화 등을 근거로 들어 부연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몇 가지 풍자 컷을 들면서 『개벽』의 발간 주체들이 사상의 시각화를 통하여 식민치하의 발언권을 지닌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어떻게 자신들을 배치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벽』의 표지는 당대 『개벽』 주체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안면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감하기에는 미약한 조선의 전통기호에 머물고 그 숫자도 미약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의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민족주의적 남성 가부장의 위치에 선 조선 지식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대상화된 시각이 부재한 것이었고, 그 부재는 자신들을 보아줄 국가권력의 부재였던 것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서유리 선생님의 연구에서 한글제호 사용, 조선 문화 기본조사에 대한 해석, 풍자컷 등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개벽』 주체의 미디어 정치세력화에 대한 강조는 매우 신선한 지적이었고, 결론에서 제기하신 안면성 형성의 빈약함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던 지점이었습니다. 본 토론은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몇 가지 『개벽』의 시각성이 지닌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특성에 대해 부연을 잠깐 한 후 몇가지 관점에 대해 토론의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통 사회의 붕괴는 전통적 상징과 기표에 대한 결별이었습니다. 당연히 근대를 추동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주도층들은 새로운 근대적 상징과 기표를 만들어야 할 위치에 처했으며 이는 급속히 성장한 인쇄기술의 발달, 카메라의 등장 등으로 이미지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전진되었습니다. 서구의 모든 근대 초기 아방가르드 디자인 양식은 이러한 근대적 주체들의 표상 만들기였으며 이것의 다양성을 통해 근대기 일상생활과 시각성이 규정되어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근대기 이러한 표상 만들기의 작업에서 당연히 주체적이며 독자적으로 만들 동력을 갖지 못한 채 지식인들은 특히 일본을 통해, 혹은 일본과의 대척지점에서, 또는 사회주의 진영은 러시아의 시각적 표상에 영향을 받으며 당대의 시각장을 형성해나갔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항 이후 모든 잡지

와 단행본, 엽서, 카렌타 포스터 등 속에서 그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벽』은 이러한 흐름의 선상에서 1920년대를 주도했던 가장 영향력있는 잡지였으며, 다양한 지식인들의 통합적 편집 의지를 보인 잡지라는 면에서 계몽적 지식인의 자아상과 시각적 프로파간다에 대한 의지, 감각, 한계를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토론 1: 양가적 존재성에 기인하는 동일시 기제의 빈곤

제가 『개벽』의 잡지 표지에서 특이하게 본 것은 상징을 이용한 전략적 배치와 메시지 전달성은 뚜렷하지만, 각 시기별 표지의 변화, 목차와 본문의 이미지 사용 등에서는 모순적인 태도가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대 편집을 했던 식민지 지식인들의 양가적 주체를 드러내는 징표가 아닌가 하는 관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는 발표자께서 의문으로 제기하셨던 동일시 상징의 빈약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즉 호랑이, 독수리, 흰 닭, 장수 등으로 설정되는 초인성, 강개한 이미지는 이미 전통기부터 초월적 정신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쓰여졌고, 그것을 주체와 동일시하고 투사하는 대상으로 호명되면서 <신문관>의 호랑이를 거쳐 『개벽』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간기에 보여지는 풍경의 표지는 그와 같은 초인성과는 동떨어진 민화적, 도안적 미감을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풍경 표지는 당대 지식인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풍류와 관상의 대상으로 자연을 벗 삼는 이상적 자아상의 또 다른 표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표지의 성향이 바뀐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출간한 지 1년여가 지난 후 『개벽』의 편집 진들은 이러한 중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검열과 발간 정지의 탄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는 해석, 또 하나는 억압적인 사상적, 정치적 상황에 놓인 식민지 지식인의 또 하나의 태도인 관조적, 양가적 태도가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1910년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초기의 강한 민족적 계몽의 열정이 사회주의적 사상과 공존, 충돌하는 와중에 이곳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내내 이상화했던 자연에 대한 찬미와 향유의 틈입했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발표자께서 예시로 든 해석하신 책 읽는 남성을 풍경에 중점을 두느냐, 인물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 표지는 두 번 사용 되었는데, 실제로 1921년 8월호(제 14호)에는 “납량호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시원하게 배를 탄 그림을 넣었다”고 하는 편집 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창간호의 기개나 상징정보보다는 계절 감응 중성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양 중절모를 쓴 남성을 풍경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 지식인들의 아비투스였던 현실의 저편에 있는 목가적 풍경에 대한 동경이 『개벽』의 표지변화에서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토론 2: 이데올로기, 이념 형상화 능력의 부재 및 경시

이런 관점은 표지에서 이미지가 없어진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후반기 제호로만 전개되는 표지는 사회주의적 기사와 논조가 강해진 시기입니다. 민족적 상징과 구체적 형상으로 자신을 표방하면서 독자를 호명했던 편집 주체들은 사회주의적 논조를 담아낼 새로운 이미지와 기술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풍자 컷이나 후반기 개벽의 삽화를 주로 담당했던 안석영 등이 제시한 미래주의적 수법의 구상적, 현실적 상징

으로 사회주의적 사상을 시각화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즉 구체적 서술성의 이미지 제작만으로 그쳤고, 이는 환영적 상징성만을 창출할 뿐 구체성을 넘어가는 형상의 제작에는 달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연히 혁명의 핵심 요체인, 운동, 변증적 발전, 진보, 대중, 힘 등을 재현적 도구가 아닌 기하학적, 물상적, 기술성으로 보여준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이 제시한 것 같은 상상력은 원천적으로 부재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식민성으로만 돌릴 것이냐, 프로파간다 이미지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관념적 한계였느냐 등의 문제는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 질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랑이, 독수리, 닭, 장수, 지도 등 몇 가지 동일시 기제와 투사대상으로서의 민족 상징을 통해서는 이미 내용적으로 변화를 해 나가는 개혁의 몸체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했가고 보여집니다. 이런 연유로 표지 이미지의 증발에 이어 목차와 본문에서도 이미지가 사라지고, 한글제호와 한자 제호의 형상만으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주권국가의 부재가 좀 더 호소력 있는 동일시의 이미지 창출에 실패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식민지적 주체가 지닌 양가적 존재성, 새로운 사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할 능력의 부재 등이 『개혁』 표지 변화가 보여주는 세 가지 단계별 추이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디자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이미지 창출 능력과 시각, 태도의 부재는 1930년대에 들어서 특히 사회주의 잡지 표지에서의 차고 넘치는 러시아 구성주의 기법의 차용과 무작위적 도입이라는 결론을 낳습니다. 간간이 안석영이나 이주홍, 추적양 등 독자적인 시각성을 보여준 작가도 있으나, 거의 모든 잡지의 표지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시각어법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국의 근대 디자인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선적 사회주의 표상의 뉘앙스를 간간히 발견할 수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토론 3: 색채 사용전략

또 하나 『개혁』이 보여준 표지 전략은 강렬한 칼라의 사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 전통 서적 표지에는 색과 이미지가 없으며, 개항기, 1910년대 잡지나 단행본, 1920년대 잡지에도 이렇게 강렬한 색채 사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의 색과 이미지에 대한 경시, 기술의 제약이었기도 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개혁은 매우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으며, 제호만 사용했던 표지에서도 바탕의 검은색과 빨강색의 강한 대비성, 빨강과 흰색의 음각으로 제호를 뽑는 등 선동적인 색채 사용을 후반기에도 이어갑니다. 1910년대에 조선 반도의 대중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딱지본 이야기책이나 신소설 딱지본에 대해 카프계 평론가였던 김기진은 대중소설론에서 당시의 대중들이 울긋불긋한 그림 표지에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극받았으니, 그 형식을 빌어서 사회주의 사상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듯이, 이미 1920년대 강렬한 색채의 사용은 문인과 식자층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는 당연하고 친숙한 근대기 매체의 소구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은 상징이나 제호 활자의 형상성 뿐 아니라 색채의 사용도 미디어 전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 수용자적 입장의 『개혁』 시각성 읽기

이외 『개벽』을 발행 주체나 지식인의 관점을 넘어서, 동시에 독자와 수용자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목차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편집이나 이미지, 기사, 광고 등의 배열과 내용은 근대기 조선인의 심리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 모순된 양가적 주체의 형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연구자께서 말미에 보여주신 풍자 컷의 '문명과 서구의 근대 = 추구해야 할 가치'의 전복이 의식상으로는 보여 지나. 광고나 기사가 보여주는 모순적인 언설과 시각이미지의 반복적 제시가 이러한 예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한 예로 목차 면에서 드러나는 서정적, 자연적 이미지와 투쟁적, 건설적 이미지의 무질서 적인 교차 배치 역시 식민성 속에서 분열된 발간 주체의 이미지 해독의 한계, 양가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같이 『개벽』의 표지 이미지가 지닌 동일시, 투사 대상의 빈약성, 세 그룹 정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지 변화에 대한 해석, 칼라 사용의 특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벽』을 꼼꼼이 보아주신 서유리 선생님의 발표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부 근대 잡지 개혁 : 토론2>

허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혁의 논조 분석
-거시적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천정환(성균관대)

1.

허수 선생님의 논문은 ‘개혁 논조의 사회주의화’ 문제(+그 주원인이 개혁공주도층의 성향에서 비롯하였는가 아니면 사상·운동 흐름의 반영이었나,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전체적인가 부분적인가)에 관해 “개혁공의 복합성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텍스트 마이닝, 특히 토픽 분석을 채택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토픽 분석 적용의 어떤 모범례 같습니다. 토픽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고 애초의 연구 목적을 달성해가려 할 때의 필요한 여러 절차를 차분하고도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토픽 분석과 그 보정, 그리고 커뮤니티 분석 등을 통해 전/후기 개혁공논조의 변화와 어휘군(재현 언어의) 교체 등을 증명한 듯합니다. 논문의 해석 결과의 하나는 기존 논의의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넘어서는 섬세한 담론의 구조를 파악한 것입니다. 즉 ‘V에서 Y자로’의 이행, 그리고 토픽8(개조론)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후 논설 저자 등 다른 요소와의 관련을 적용하면 발표자가 증명하려 했던 주장이 아마도 더 단단한 논거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대부분의 청중들에게 토픽 분석이 아직 낯설 거 같고, 사실 토론자도 토픽 분석으로 한 편의 논문을 공동 집필했을 뿐 아직 문외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써 이같은 연구방법의 의의가 무엇인지 한국 인문학 연구자들에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견지에서 세 가지 큰 질문을 드릴텐데, 이 방법에 대한 공부가 좀 깊으면 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있고 개혁공연구 자체와는 관련 없는 토픽모델링과 DH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토픽 분석에 관여되는 연구자의 주관과 비선형성의 문제 등

논문에 대해서는 당장 왜 ‘문서’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왜 334개를 설정했나? 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선정과 전처리의 적절성은 해당 분석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의 자의성이나 주관성에 대해 지적하기는 쉽지만, 사실 다른 대안을 제안+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자료를 잘 알고 또 적용해봐야 아는 그런 게 항상 이런 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또한 대부분은 직관에 기초해있다.) “토픽의 종류와 단어 수는 필자의 판단과 재량에 의한 것이며 그 지정값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것도 토픽모델링의 한계임과 동시에 어찌면 특징입니다.

- 이어지는 질문.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보다 토픽 분석을 했을 때 장점은 결국 무엇일까요? “변덕꾸러기 토픽 분석”이라는 글을 인용하셨을 만큼.(또 저 자신도 조금 경험한 바) 난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신 듯합니다. 토픽 모델링의 결과가 내포하는 의외성이나 비선형성(=자의성?)을 결정적으로 넘어서는 방법이나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은 무엇일지? 그런 게 있을지.....?

그런데 한편 이 예상치 못함 자체(AI 학습의 ‘무작위’성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가 어떤 오류나 한계라기보다는, 토픽 모델링의 의미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¹⁾ 그래서 분석 중간의 과정이나 거기 개재된 허점이나 오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기 어떤 징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 그리고 동시에 사후적인 보정이 갖는 의미도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보정으로써 통제되고 반복을 통해 더 정제된 만족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비선형성이란 결국 인간 언어의 사용의 복잡성, 다의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맥락’을 순수하게 살려내는 양적 연구와 정규화 등이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3. 토픽 분석 논의 대상의 문제

애초에 이런 AI의 적용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대상의 거시적인 맥락이나 그 빅데이터(즉 숲)에 흐릿하거나 감춰져있는 경향이나 비밀의 한 자락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후학으로서, 그리고 DH 연구에 대한 지지자로서 선생님의 선행연구를 포함해서 객관적 평가에 대한 기존 DH 적용 연구 등과의 차이를 방법으로나 결과로서나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픽 분석은 어떤 언어의 집합체에서 언어를 수집하고 그 분석의 단위를 적절히 분절하고(또 그것을 보정하여 분석가능한 언어로 전처리하고), 그 다음 AI로 하여금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관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어떤 대상일 때 이 분석은 가장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기존에 우리가 연구해오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상? 아니면 아예 새로운 대상?

그러할 때 대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실증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일 때 제기되는 DI에 대한 꽤 많은 저항(왜 굳이 그런 방법을? 이라는 식의)에 근본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저는 더 어울리는 대상과 사회적 맥락이 있을 거 같습니다. 민중사 개념 연구의 충격!)

- 이 논문은 비교적 알려진 작은(?) 주제에 대해 시계열적 분석을 정밀하게 시도한 것입니다. 기존 선생님의 연구(개념사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등)과 비교할 때 이번 논문의 의의에 대한 자평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지만 비록 재현이 가능하다 해도 매번 결과가 달라지는데 대체 무엇을 결과로 보아야 한단 말인가? 링크 1에서 링크10 사이에 무엇이 동성애 기사에 대한 정확한 토픽 모델링인가? 사실 답은 ‘정답이 없다’라는 데에 있다. 각 모델은 모두 최초 주어진 무작위 토픽에서 텍스트(기사 1만2873개)를 통해 무언가를 학습한 결과이다. 즉 각각 텍스트에 대한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취하는 것이다.”

<2부 사상과 운동의 개벽: 토론1>

『개벽』의 도덕, 도덕의 개벽
- 이행훈 교수의 논문에 대한 세 가지 코멘트 -

조성환(원광대)

본 논문은 **래개벽공**에서의 ‘도덕’의 문제를 주제로 일본 및 서양과의 비교 등을 겸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자의 노고가 느껴진다. 그러나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논의가 한 군데로 모아지지 못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개벽과 도덕’이라는 하나의 문제에 집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즉 **래개벽공**에서 ‘개벽과 도덕’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동학에서의 도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대한 **래개벽공**의 세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간단히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발표문을 읽은 단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일본에서의 종교와 도덕의 문제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근대 일본에서의 ‘신도’와 ‘신교’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55쪽-56쪽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종교를 도덕의 하위에 배속하면서 천황제를 뒷받침하는 신도도 **도덕화·비종교화**했다. 불교와 신교, 기독교 이외 나머지는 **비종교로** 치부하고, 유교는 국가에 이바지하는 신민의 도덕으로 변질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도는 비종교화했고, 신교는 종교로 인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신도와 신교는 같은 것이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신도를 불교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로 인정했다가, 이후에는 그것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른바 ‘국민도덕’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도덕’(“신도비종교론”)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요?

(2) 『개벽』에서의 동학사상의 위상

래개벽공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서양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또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는 **래개벽공**이 동학을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동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통을 재해석하고 서양을 수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래개벽공**의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 빠지면 개벽파와 개화파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일본의 서구 수용과 천도교의 서구 수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어려워져, **래개벽공**은 이른바 ‘번역의 근대’나 ‘중역(重譯)의 근대’라는 틀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동학과 천도교를 바탕으로 하는 **래개벽공**의 ‘창조적 근대’의 측면이 망각되게 됩니다.

래개벽공이 이렇게 이해되어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래개벽공**내에서의 동학사상의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발표문 제2장의 제목은 “구도덕 비판과 신도덕 구축”인데, 이러한 작업은 이미 최제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천주’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는 최제우의 ‘천도’와 ‘천덕’ 개념은 종래의 유교 도덕에 대한 ‘반항도덕’에서 나온 새로운 도덕이고, 최제우(1824~1864)를 이은 최시형(1827~1898)

의 ‘천지부모’ 사상은 유교의 ‘효’ 개념을 인간에서 천지(지구)의 차원으로 확장시킨 새로운 도덕이며, 발표문의 맨 마지막에 언급하신 이돈화의 ‘경물(敬物)’ 사상 또한 도덕의 대상을 인간에서 만물로 확장한 신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돈화를 중심으로 하는 2개벽공의 필진들은 대개 이러한 신도덕의 연장선상에서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을 조화”(62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돈화가 “가정의 중심을 조상에서 자손으로 옮기고 부자자효의 사상을 관계본위에서 인격본위로 바꿀 것을 제안”(62쪽)한 점도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이나 최시형의 향아설위 사상에 이미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시형의 향아설위는 제사의 대상을 조상에서 자손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최제우의 ‘시천주’나 최시형의 ‘인시천’은 인격 본위 인간관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개벽』에서의 도덕과 개벽의 관계

제가 보기에 동학에서의 ‘도덕’ 개념의 특징은 ‘개벽사상’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시형의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심개벽이다. 물질발명이 극에 달하면 선천도덕이 순응치 못할 것이다”(2월월신사법설공기타)이라는 말이고, 이돈화 역시 2개벽공의 ‘개벽사상’ 편에서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학의 개벽은 ‘도덕개벽’이고¹⁾, 바로 이 점이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정치적 revolution)이나 유교적 의미에서의 혁명(역성혁명)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를 연다”(개벽)는 점에서는 혁명적이지만, 그 방법을 (하늘을 모시는) ‘도덕’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야말로 당시 일본의 도덕 관념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일본은 최시형식으로 말하면 ‘물질개벽’에 치중하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보다는 과학을 우위에 두었으며(후쿠자와 유키치), 그래서 동학이나 천도교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정신개벽론’이나 ‘도덕개벽론’은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발표문의 핵심주제는 ‘도덕과 개벽의 문제’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개벽공이라는 사상지에서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벽과 도덕에 대해서는 발표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언급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양자가 따로 따로 이해되고 있고, 논문 전체의 분량에 비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소략한 느낌입니다(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아울러 이돈화의 삼대개벽론(“정신개벽-사회개벽-민족개벽”)은 “더욱 정치이론화”(65쪽) 되었다고 보고 계신데, 확실히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개벽의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나 ‘정신개벽’에 있고, 그런 점에서는 최시형의 도덕개벽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돈화가 “정신개벽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법칙을 요하게 된다. 하나는 사람성 자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요 하나는 반항도덕(反抗道德)이라 하는 것이다. (...) 반항도덕이란 것은 기성의 윤리 혹은 정치체제[政制] 안에서 그 결함을 알아가지고 감정과 의지로써 그 부자연에 대하여 반항함을 이룸이니, 정신개벽에 있어 반항도덕이 얼마

1) 조성환, <최시형의 도덕개벽론>, 《개벽신문》 81호, 2019년 1월 참조.
(<https://brunch.co.kr/@sichunju/510>)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한 점으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²⁾



2) 이돈화, 러신인철학공제4편 개벽사상, 제2장 개벽방식과 삼대개벽, 제2절 정신개벽

<2부 사상과 운동의 개벽: 토론2>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의 영향」에 대한 토론문

김영진(성균관대)

토론에 앞서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개벽공연구의 대가이신 최수일 선생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개벽공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리였겠지만, 다행히 신간회와 관련된 것이라 부족하나마 감당해보려고 합니다.

「신간회 결성에 끼친 개벽공의 영향」은 도전적인 질문을 담은 발표입니다. 1926년 8월 폐간된 개벽공과 1927년 2월 결성된 신간회 사이의 간극을 넘어 담론 차원과 인적 차원에서 개벽공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천도교와 신간회의 연관에 대해서 주목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발표는 사회운동이나 종교단체로 수렴되지 않는 개벽공이라는 매체의 독자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개벽공을 통해 발화된 ‘민족협동전선론’의 의미, 그리고 개벽공의 유통 관련 인물들과 신간회 회원의 중첩을 보여줌으로써, 두 조직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채우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특히 개벽공지분사 숫자와 신간회의 지회 및 회원 숫자를 고려하면, 두 집단의 인적 정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1920년대 전후반을 대표하는 두 단체를 교차한 결과가 무척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시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 확인보다는 기본적인 정세인식과 문제의식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1.

발표자는 개벽공이 운동조직이나 종교조직으로 수렴되지 않는 매체로서 독자적 담론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이 신간회의 결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론-파급력이라는 관점에서 개벽공의 영향력이 “타협적·기회주의적 움직임을 분쇄하고 신간회의 결성을 이끌어낸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적 유통망과 광범위한 독자층을 보유한 개벽공이 그 전방위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민족협동전선론’이라는 담론 형성과 그 결과물인 신간회 결성에 핵심적 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접근은 치안유지법 실시와 개벽공폐간이라는 두 사건이 상징하듯이 ‘문화정치’ 시대와 그 이후의 분절된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치안유지법 실시 이후의 합법정치 공간의 변화는 주지하는 바입니다만, ‘민족협동전선론’과 관련한 설명과 정세 인식이 너무 이균영의 연구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1) 개벽공과 ‘민족협동전선론’이라는 담론의 연결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협동전선론’이 하나의 담론으로 구분 없이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초의 발화라는 점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균영은 발표자가 인용한 것처럼 개벽공60호, 1925년 6월호)의 설문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처음으로 민족주의자와의 협동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 초반 문화운동 시기에도 누구와 함께할지를 두고 사회주의

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처럼, 이 시기에 민족주의자와의 협동 자체를 원론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세력과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설문에서도 답변한 사회주의자들이 하나 같이 민족주의자와 같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비타협적' 혹은 '혁명적'이라는 제한적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이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에 직접 나선 것은 1926년 강달영 중앙이 결성된 이후입니다. 이처럼 조선공산당도 김재봉 중앙, 강달영 중앙, 안광천 중앙 등에 따라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공산동맹도 6.10만세운동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 것처럼 조선공산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덕영의 주장처럼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적 중심세력론'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의 '민족협동전선론'은 다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협동전선론'이 담론적으로 **래개혁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래개혁공**의 영향력과 신간회 지회 확산을 연관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간회 지회 건설은 사회주의 세력과 훨씬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효정이 지적했듯이,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종료 이후 신간회 지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통해 조선공산당을 주도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성이 대중적으로 확인되었고, 조선기자대회 이후 처음 열린 전국대회였기에 지역-중앙의 인적 교류가 존재했습니다. 신간회 지역 지회 성립의 모멘텀이 중앙협의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간회 경성지회도 중앙협의회 종료 이후 성립됩니다. 이는 1925년의 '시초적'/당위적인 '민족협동전선론'과는 다른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조직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래개혁공** 미디어성에 주목하겠다고 언급하지만, **래개혁공** 주체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분사를 포함한 **래개혁공** 유통망을 일컫는 것 같기도 하고, **래개혁공** 필자들 혹은 본부 기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천도교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담론이 **래개혁공**이라는 매체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체로서의 **래개혁공** 매체로서의 **래개혁공**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

이 발표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래개혁공** 유통 관련 인물과 신간회 참여인물을 교차 검증하는 것입니다. 60명 정도만 제시되었지만, 발표자의 언급처럼 더 확대되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이런 분석은 지역 언론인의 존재 양식, 지역 사회운동 및 지역 정치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분석이 **래개혁공**과 신간회라는 집합 명사로 수렴되어 비교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래개혁공**이라는 잡지 유통에 참여한 것과 신간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는지 아직 해명된 것 같지 않습니다. **래개혁공**을 통해 구축된 유통망이 지역사회 속에서 변용·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현재 연구지형에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표자도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래개혁공**유통 담당자들이 신간회 회원으로 재등장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래벽공유통** 관련 인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 지역의 지분사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래벽공유통** 관련자로만 특권화해서 호명할 수 있을까요? **래현대평론공** 지분사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매체라고 지분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잡지사와 신문사의 지분사의 인적 구성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잡지사나 신문사의 본부와 지분사의 관계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즉, 매체로서의 **래벽공** 유통 관련 ‘인물들’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통망 자체는 **래벽공**이라는 매체로 수렴가능하지만, 유통 관련 ‘인물들’은 개별 지역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래벽공과 신간회에 모두 참여한 인물로 제시한 명단 중 가나다 순으로 가장 앞에 있는 강훈의 경우, 경북 상주 출신으로 신간회 상주지회 간사만이 아니라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도 참여한 사회주의자입니다. 표면에서는 상주 지역 청년운동의 핵심지도자로, 조선청년동맹 집행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래벽공** 비롯하여 **래동아일보공**과 **래조선일보공** 상주지국에서 총무 및 기자로 활동했고, **래현대평론공** 상주지국장을 맡은 지역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훈을 **래벽공**과 신간회의 연결이라는 설명을 위해 호명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래벽공유통** 관련 인물들과 신간회 회원을 교차해서 60명 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교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이 확보되어야 설명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간단히만 했는데 벌써 60명이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유통 관련 인물편람의 475명이 다 신간회 회원이라고 확인되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간회의 규모를 보면, 전국 단위 숫자로 500여 명은 적은 것 아닐까요? (참고로 신간회 경성지회의 경우, 1927년 12월 당시 회원이 1,000여 명이고, 1929년 1월에는 1,300여 명입니다.)

(3) 발표자가 의도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 송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래벽공**과 신간회의 관계보다 **래벽공**과 **래조선농민공**의 유통망 비교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간회와의 관계도 **래벽공**보다는 조선농민사나 천도교청년당과 비교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부 사상과 운동의 개혁: 토론3>

박숙자 선생님의
『혁명 이후의 말, 삼일운동과 『개혁』
-독자투고, 현상문, 강연문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권두연(한세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숙자 선생님의 발표문은 **개혁공다시** 보기를 통해 삼일운동(발표자의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의 사건성을 환기하고 삼일운동을 혁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에서 혁명 이후 쏟아져 나왔던 ‘소리’들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던 지난 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개혁공**을 통해 삼일운동을 다시 복기하고 그 의미를 묻는 작업은 매우 뜻깊고 또 지금까지 주로 미디어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던 **개혁공**연구를 “만세”의 연장에서 말과 소리의 정치학으로 읽어내는 선생님의 작업은 흥미롭습니다.

덕분에 긴 세월 제 책장의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며 붉은(**개혁공**의 영인본 표지 색깔이 붉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벽돌처럼 붙박여 드문드문 펼쳐 봤던 **개혁공**, 버리지 않길 잘했구나 생각하게 된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담이 길어져 송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탁월한 문제의식에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울 정도로 공부에 깊진 않아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몇 가지 의문과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1. 삼일운동과 혁명에 대한 의문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발표문에서 3.1운동이라는 표현 대신 “삼일운동”을 쓰고 계시고 각주 6에서 분명하게 밝히셨듯 삼일운동을 혁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다만 4장에서 “100년 전 **개혁공** ‘실패한 혁명’ 이후에 ‘인민의 소리’를 정치적인 것으로 기록, 재현한 매체”(발표문 105쪽)라고 서술하고 계셔서 선생님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발표문의 모두에서 제기한 **개혁공**의 사건성은 혁명 이후의 시간적 인과성을 사건적 인과성으로 오인할 여지를 문제 삼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개혁’이라는 이 잡지의 제목만을 염두에 둔다면 그 혁명의 진취성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개혁공**의 사건성은 삼일운동의 사건성을 재정립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이 혁명의 실패(라고 간주한다면)가 혁명과 삼일운동, 혁명 이후와 **개혁공**을 재정립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2. <동아일보>와 『개혁』의 독자 투고에 대해 보충 설명

두 매체의 독자 투고에 대한 분석은 이 발표문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꼼꼼하고 치밀한 분석 결과 <동아일보>가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개혁공**은 평등주의에 입각한 동질성을 추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는 결

국 ‘말의 형식과 조직 혹은 매체의 상동성’과도 닿아 있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선생님은 <동아일보>의 <때의 소리>를 통해 ‘우리’로 집단화 혹은 귀속하려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차별이나 차이를 균질화하는 매체의 속성을 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균질화의 욕망이 매체의 지향과 결부되었으리라는 추측은 자연스러운데 그렇다면 어떤 지향이 <동아일보>의 독자 투고를 그러한 방향으로 견인해갔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보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의문은 향후 <동아일보>가 학예면을 비롯한 각종 난(‘부인가정란’, ‘소년소녀란’ 등)을 기획하면서 분화해가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래백공**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자면 이 매체가 천도교라는 종교성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평등성에 입각한 동등함이나 잡지의 구독자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독자 투고를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점 등은 종교적 지향이나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래백공** <동아일보>처럼 독자 투고를 균질하게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과 차이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급기야 말글 즉 문체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논문’과 청년의 강연, 그리고 사우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조금 다른 입장에서 **래백공**의 현상문과 청년/학생 강연, 그리고 사우제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래백공** 창간 1주년에서 “‘독자’를 대신해서 ‘논객’과 ‘문사’를 호명한다”(발표문 100쪽)고 하면서 이를 “객관적 거리 조정”(101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광수의 「문사와 수양(1921)」에서 드러나듯 당시 ‘문사’라는 표현은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리하여 친구세대의 갈등을 대표하는 수사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래백공**의 “객관적 거리 조정”은 혁명의 발화 주체들이었던 당시 청년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퇴보한 것이 아닌지, 실제로 발표문에서 언급한 **래백공** 편집진인 김기전은 청년과 학생을 담론장에서 밀어내고자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¹⁾ 따라서 담론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논문”을 요구했던 것이고 <학생논단>에서 자행된 “삭제와 봉합과 보충의 결과”는 그 연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방된 독자로부터 출발한 독자 투고와 독자의 ‘소리’가 사우제로 귀착된 것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집된 최종 결과가 아닌지 여쭙니다.

어쭙잖은 몇 마디 글로 발표문의 귀한 논지를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 저어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1) 김현주, **라사회의 발견-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공 소명출판, 2013, 398쪽.

<3부 개벽과 식민지 문화: 토론1>

박현수 선생님의 「동인지와 프로 ‘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토론문

권보드래(고려대)

1. 백 년 전 『개벽』

백 년 전의 문자, 『개벽』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벽』은 『사상계』나 『창작과비평』의 선구, 그야말로 한 시절을 이끌었던 잡지인 만큼, ‘문자의 시대’·‘대중 독서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백 년 전 『개벽』을 회상하는 마음은 복잡합니다. 주최측에서 기대하셨던 대로 “백 년 전 『개벽』을 통해 앞으로 백 년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1922~23년 문학의 ‘침체’?

박현수 선생님께선 1922~23년이라는 시기를 특정하신 후, 동인지 붐이 퇴색하고 신문사 등의 문학 투자는 인색했던 당시 『개벽』이 문학장을 유지·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1923년 후반부터 『개벽』을 무대로 (준)프롤레타리아문학이라는 ‘신경향’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도 그 일환이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발표문 논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1922~23년 문학의 ‘침체’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제1장에서의 서술이 ‘동인지 문학의 침체’와 ‘문학 전반의 침체’ 중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좀 모호하기도 한 까닭에요.

발표 소설 숫자 등을 확인하지 못해 어림짐작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시다만, 배재와 휘문의 문학적 역량이 합류했던 『백조』(1922. 1~ 1923. 9)는 바로 이 시기의 잡지였고, 그 낙원동 아지트 ‘흑방(黑房)’은 각종 문화적 기행의 진원지였습니다. 잡지 『폐허』는 폐간된 후였으나 예컨대 염상섭은 1922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연재란이 (이광수가 독점하고 있던) 창작 장편의 산실이 되어, 나도향의 『환희』를 시작으로 젊은 세대의 장편소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염상섭의 첫 장편소설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도 이 시기의 산물입니다. 선생님께서 당시 신문의 문학 투자는 연재소설란이 고작이었다(『조선일보』 1면의 문예란 제외?)고 하신 데 동의합니다만, “연재소설 역시(...)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데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1922~23년을 ‘동인지의 혁신 동력 퇴색’과 ‘신문·잡지 중심 문학 질서의 형성’이 중첩돼 있던 시기로 명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3. 실질적 학예부장으로서의 방정환?

이 점은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1922년 말 현철이 학예부장을 사퇴하고 1924년 말 박영희가 학예부장이 되기까지 방정환이 실질적으로 『개벽』의 학예부장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하고 계신데요, 이는 10여 년 전 선생님께서 방정환을 가리켜 “『개벽』에서는 여러 기자들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하신 데서 크게 달라진 견해입니다. 조금 더 확정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4. 『개벽』의 작가들과 천도교?

이것도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천도교의 ‘개벽’론은 제1차 대전 전후 세계적 개조론과 호응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해 갔던 만큼, 『개벽』의 지면 중 천도교의 직접적 영향하에 놓여 있던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선생님께서는 방정환의 존재 등을 통해 ‘『개벽』의 문학과 천도교’ 사이 관계를 좀더 탐색해 보아야 할 필요를 제기하셨습니다. 현진건이라든가 김형원을 특별히 거론하셨구요. 역시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숙이 천도교청년회 임원이었다거나 ‘포덕’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정도로 그 영향 관계를 가정해도 될는지 의문입니다. 백철처럼 천도교의 세례를 깊이 받은 문인도 있었고, 그 밖에 ‘천도교와 한국문학’은 더 탐구할 주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5. ‘생활의 부재’로서 예술과 혁명의 등가성?

선생님께서 반복해 지적하셨다시피 『개벽』은 원고료 제도를 정착시켜 전문 작가 출현을 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물론 원고료만으로 생활할 수 없었던 상당수 작가들은 기자직 등을 겸업해야 했지만요. 선생님께서는 ‘동인지 문학의 비현실’을 타파하려 했던 김기진(그 대립의 형식은 송영·박세영 등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만)도 『개벽』의 원고료에 의지하다 결국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정황을 들어, 초기 프롤레타리아 작가들 역시 생활 자체의 문제에 육박하지 못했던 만큼, 그들의 ‘혁명’이란 동인지 시대의 ‘예술’과 별다르지 않은 비현실이 아니었을까 질문하셨습니다. 동시에 1922~23년에 시도됐던 문인회 조직 건을 들어, 『개벽』처럼 ‘문학도 생활’임을 알았던 매체마저 그런 문학-노동의 흐름에 호응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활의 토대에 따라 공부와 문학과 글쓰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 ‘수도원’ 같은 연구자 공동의 터전을 상상해 보지만, 법·소유의 현실 질서 바깥을 만들어 가기란 어렵습니다. 백 년 전, 러시아 내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던, ‘혁명’이 바야흐로 시동 중이었던 그때는 어땠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문학도 생활’이어야 한다는 요청으로써 문학-노동자(또한 예술-노동자, 지식-노동자)의 존재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농민·노동자와 연대하는 지식인의 형상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진처럼 높은 학력 자본을 갖췄던 경우는 최서해처럼 학력 자본이 빈약했던 사례와 또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기진·박영희·이익상 등이 1920년대 중반 일제히 ‘자식이 태어났을 때’를 글로 썼다는(예컨대 이익상의 「구속의 첫날」) 기억도 납니다.

5. ‘문단’이라는 플랫폼의 형성

1922~23년은 근대 대중문학이 본격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자영이 『사랑의 불꽃』과 『반항』을 히트시킨 것이 바로 1923년입니다. 그 이전 『장한몽』이나 『추월색』 같은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도 노자영의 출현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장한몽』『추월색』의 시절에는 없었던 ‘대중문학을 혐오하는 문단’이 1922~23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벽』은 『동아일보』 등과 더불어 그 같은 ‘문단’의 형성에 이바지했고, 『조선문단』 등을 거치며 ‘문단’의 존재는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강력한 비평 권력이 존재하는 한국문학 일반의 특성을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그렇잖아도 과거시험 전통이 강한 나라인데, ‘문단(文壇)’에 올라서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식의 관습이 그때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춘문예나 추천제나 공모전 같은 ‘작가 시험’이 있는 형국이랄까요. 이 시험을 주재하는 이들이 비평가들로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시집이나 소설집이라면 말미에 비평가 해설을 붙이곤 하지요. 3·1운동 전후와 4·19 전후에 ‘동인’이라는 존재 형식이 부상했습니다만(염상섭의 말마따나 책임자도 위계도 없는 조직－대신 양건식이 탄식한 대로 “오늘날같이 문단에 이름을 두기가 쉽기는 아마 전고(前古)에 예가 없을” 폐단을 빚기도 하는) 그것이 주류가 되진 않았고, 출판사-편집자의 주도권은 내내 약했습니다. 규범적 독서가 자유로운 독서보다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었을 터이구요. 이런 특징이 형성되는 지점에 『개벽』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특히 『조선문단』 출현과 나란히 마련된 현상문예). 이상과 같은 한국문학의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개벽』의 영향에 관해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0. ‘기백과 금지와 희생’

『개벽』을 회상할 때면 사람들이 떠올리곤 했다는 “기백과 금지와 희생적 정신”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개벽』 백 주년을 기념하는 마음이 노스탤지어가 아니라 더 살아갈 힘을 위해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3부 개벽과 식민지 문화: 토론2>

유석환, 「1920년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문학시장의 구조적 변동」 토론문

정용서(연세대)

몇 년 전 개벽사에서 잡지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개별 잡지를 누가 책임지고 편집했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글을 발표하였다. 개벽사에서 1920년 6월 **래개벽공** 발간한 이래 1935년 3월까지 15년간 모두 9종의 잡지를 간행하였다. 그런데 각 잡지의 판권지에 있는 편집 겸 발행인과 그 잡지를 직접 편집한 편집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벽사 발간 잡지의 성격과 지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편집한, 즉 개벽사 편집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개벽사에서 발간한 각 잡지의 편집을 책임졌거나 편집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벽사에서 발행된 잡지 편집에 참여한 인물들의 동향과 그에 따른 잡지의 내용과 편집방향의 변화 등을 분석해 다방면의 잡지를 발간한 개벽사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오늘 근대문학사에서 개벽사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학시장과 관련하여 검토한 발표를 들으며 몇 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개벽사 발간 잡지를 개별적·부분적으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잡지 간의 연동을 고려하며 개벽사의 위상과 지향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해보자고 한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래개벽공** 뿐만 아니라 개벽사 발간 잡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으로 다종 잡지 간행을 언급하였습니다. 개벽사는 이돈화가 말했던 “보편지식”을 연령, 성별, 학력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층화시켜 그에 걸맞은 다종잡지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였습니다. 개벽사가 사회 전 계층을 자신의 독자로 삼기 위해서 **래개벽공**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잡지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잡지가 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개벽사가 천도교단과 속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개벽사는 천도교청년회/청년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천도교청년당의 현실인식과 운동 방략이 개벽사의 다종 잡지 출간에 끼친 영향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당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일반 민중을 동일한 형태로 취급하여 상대하고 지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당본부에 유소년·학생·여성·청년·농민·노동·상민의 7개부를 두었습니다. 연령별·성별·직업별로 구분하여 7개의 부문을 두고, 각 부에 부원을 두어 각각 그 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연구하며, 나아가 부문단체를 조직·훈련하여 각 부문의 운동을 지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당의 부문 운동과 개벽사의 연령·성별·학력 등에 따른 다종 잡지 출간이 갖는 상관관계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통망 확대와 관련해 발표자는 개벽사의 지·분사 신설 현황(133쪽)을 예로 들

었습니다. 지·분사 신설이 개벽사의 황혼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실이 말해주듯이 지·분사 신설이 곧 개벽사의 사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시기를 넷으로 구분(1921.7-22, 1923-26, 1927-30, 1931-35)하여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벽사의 황혼기를 과연 1931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참고로 저는 개벽사 잡지 발행 추이를 토대로 단순하게 다섯 시기로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① **래**개벽공이 간행되던 1920년부터 1926년까지의 시기. 이때 개벽사에서는 **래**개벽공 외에 **래**부인공 **래**신여성공 **래**어린이공잡지를 간행하였다. ② **래**개벽공이 폐간되고 나서 **래**어린이공와 **래**별건곤공두 종의 잡지만 간행되던 1927~1928년의 시기. 개벽사 잡지 발간이 가장 불안정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③ 개벽사 스스로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래**어린이공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래**학생공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래**별건곤공이라는 잡지 발행 체제를 갖췄다고 한 1929~1930년의 시기. 개벽사는 점차 사원도 늘고 잡지 발행도 안정되어 갔다. ④ 개벽사 잡지 발간이 가장 활성화 되는 1931~1933년의 시기이다. **래**어린이공 **래**신여성공 **래**별건곤공 **래**혜성/제일선공 **래**신경제공잡지가 간행되던 때이다. ⑤ 개벽사 잡지 발간이 침체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1933년 하반기부터 1935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이다.

발표자는 **래**개벽공 **래**어린이공 **래**학생공 **래**부인공 **래**신여성공 **래**별건곤공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시기별 비중 변화를 분석해 문학시장 교환기구로서 개벽사의 역할을 검토하였습니다. **래**개벽공 **래**어린이공 **래**부인/신여성공은 1년 단위로, **래**별건곤공은 6개월 단위로, **래**학생공은 3개월 단위로 구분해 문학작품 비중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별 잡지의 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각 표의 시기 구분이 동일하지 않은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개벽사 잡지 발행 현황

연도	월	개벽	부산청정	어린이	별건곤	학생	해상잡지
19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3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현숙 선생님의 「개벽사와 차상찬」에 대한 토론문

이혜정(서울시립대)

이 글은 한국 근대잡지사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던 개벽사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진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음을 지적하며 특히 차상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1920년 6월 『개벽』을 발간하여 1935년까지 9종의 잡지를 발간한 개벽사의 편집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 글은 ‘사상가로서의 편집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벽사의 편집진에게 좀더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차상찬은 ‘잡지계의 전설’로 알려졌음에도 단순히 잡지를 만들었던 잡지인으로서 ‘방담’에서 주로 언급되거나 천도교측의 연구에서 그쳤습니다. 이는 개벽사의 편집에 있어서 방정환이나 이돈화, 박영희 등 문화 사상계에서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던 필진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상가로서의 편집자’라는 개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다른 편집진들이 사망하거나 이탈하는 와중에서도 개벽사의 시작과 끝에서 그 자리를 지킨 차상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동안 차상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개벽사의 필진들이 필명이나 일기자 등으로 집필을 하였던 것처럼 차상찬 또한 필명으로 집필을 하였으며 그 필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난제였던 차상찬의 필명을 밝히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차상찬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이는 『차상찬 전집』(2018)의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차상찬에 대한 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기에, 이에 과묵한 저로서는 배우는 자세로 선생님의 연구를 따라가면서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개벽사가 1922년 경 신문화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작업 중의 하나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표방과 함께 시작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 기획이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찬이 개벽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22년경부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차상찬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려지다시피 차상찬은 김기전, 박달성, 이돈화 등과 함께 『개벽』의 창간동인이었으며, 『개벽』 사원의 명단(개벽 7호(1921.1), 개벽 31호(1923.1))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아 창간부터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요, 집필과 별개로 1922년 이전의 『개벽』에 있어서 차상찬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문제의식이 ‘편집’에 있는 만큼 집필을 하지 않았더라도 편집이나 잡지발간에 관여를 했다면, 1922년 전후 활동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실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즉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기본조사’가 이전의 계몽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보고 계십니다. 특히 1923년부터 『개벽』에서 비중이 높아진 사회주의담론의 민족, 민중 계

몽 담론과도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매체의 변화를 짚고 있는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이러한 작업 또한 넓은 혹은 다른 의미에서의 계몽적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전의 계몽담론과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민족의 구체적 현실을 알리는 것 또한 계몽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계몽이 아닌 객관적인 보도로서의 변화를 지향점으로 보고 계시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논의는 그동안 개혁사의 활동이 계몽성으로 수렴되곤 하였던 기존의 논의에서 나아가 다른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계몽담론과 그것의 한계를 짚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잘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별건곤』, 『해성』, 『제일선』 등으로 이어지는 매체 변화가 단순히 편집 주체의 욕망이 아니라 독자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차상찬을 비롯한 편집주체들이 독자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별건곤』에서 “독자를 계몽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보고, “독자를 담론의 객체가 아니라 공동 주체로 초대하는 서술방식”은 앞선 계몽담론과 관련하여서도 변화의 지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편집자의 판단이 대상 독자의 변화로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